전남대병원, '국가영웅'에 희망의 소리 선물

'KT 소리찾기' 보훈부 등과 협력
조형호 교수 휴무일에 전담 진료
보청기 제작·인공와우수술 지원

조형호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최근 난청 증세가 있는 국가유공자를 진료하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제공〉

전남대병원이 KT, 국가보훈부와 손을 맞잡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에게 잊혔던 소리를 되찾아주는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18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KT는 난청을 겪는 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전문진료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KT 소리찾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남대병원과 국가보훈부가 힘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형호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휴무일을 반납하고 국가유공자 어르신만을 위한 전담 진료를 진행했다. 단순한 보청기 제공을 넘어, 대학병원의 정밀한 진단과 전문적인 청력 상담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맞춤 제작하는 등 최고의 의료 서비스가 펼쳐졌다.

6·25 참전 유공자 가족인 양승환씨는 "참전용사인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귀가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진료를 받으러 왔다"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어머니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거 같다. 소통의 문을 열어준 교수님과 KT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과 KT 등은 국가유공자에게 전담 진료와 보청기 제작뿐 아니라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리를 선물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전남대병원은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진심을 다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해양경찰의 활약상 진정성 있게 전달할게요"

김세화 서해해경청 홍보계장

언론인 출신 父 영향…섬세함 등 갖춰
친화력 토대 소통 활발…홍보 베테랑

"아버지가 신문을 통해 지역과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듯 저도 해양경찰의 국민을 향한 사명감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김세화(46·**사진 오른쪽**) 경감은 언론인 출신 부친의 뒤를 이어 언론홍보 부서에 몸담으며 대국민 해양경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김 경감은 해양대학교에서 항해학을 전공하고 상선 항해사를 거쳐 해양경찰관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목포해양경찰서 홍보계장 등의 보직을 거쳐 올해 2월 서해해경청 홍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2년차 해양경찰관이다.

김 경감의 부친 김창섭(89)씨는 지역 언론인으로 올해 창간 35주년을 맞은 해남신문 초대 발행인을 역임했다.

그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김 경감의 어릴 적 장래희망은 '작가'였다.

이에 김 경감은 유년시절 꿈을 동력 삼아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현장에서 애쓰는 해양경찰의 다양한 활약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홍보 최일선 부서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을 토대로 언론매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적시성과 진정성을 갖춘 해양경찰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매진함으로써 홍보업무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세화 경감은 "스스로를 해양경찰 홍보 분야에 최적임자라 여기며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맡은 임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 수애원 지역아동센터, 경주 역사문화 탐방

영광 수애원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1박2일 일정으로 '즐거운 여름방학, 내 소원을 들어줘 5탄' 경주 역사문화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CJ도너스캠프, 영광새마을금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아이들은 찬란한 신라의 문화와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탐방 코스는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황리단길 ▲양동마을 ▲경주월드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통해 유물과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유산의 의미를 체험 활동으로 배우며 오감을 활용한 역사 학습의 즐거움을 더했다.

마지막 날에는 '나의 꿈, 우리의 소원'을 주제로 소감 나누기와 희망 메시지 작성 등 정서적 교감 시간이 마련됐다.

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리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자긍심을 느끼고 친구들과 협동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시니어 디지털 스쿨' 성료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최근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타운 이용 회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13일 주 2회 2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카카오임팩트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지원하고 4명의 강사와 타운 회원 2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카카오톡·카카오맵 활용 ▲교통앱(카카오T) 사용법 ▲카카오페이 및 금융사기 예방 ▲공공서비스 활용법 등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용덕 본부장은 "카카오톡 디지털 활용법 교재를 기반으로 금융·교통·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GIST, 어린이 대상 'AI 과학캠프' 성료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체험 프로그램 'AI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18일 GIST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GIST 사회공헌단 '피움'이 운영하는 지식나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협약(MOU)을 맺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올해 캠프는 육군 상무대와 광양제철의 추천을 받은 6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AI를 주제로 한 맞춤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참가 학생들은 GIST 교수진의 특강, 캠퍼스 투어, 재학생 멘토와의 실습, 연구실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의 강의실과 연구실을 직접 경험했다.

김재관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AI 과학캠프가 어린이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껏 키우고 미래의 '과학 리더'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공계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하나님의교회, 광주 북구서 수해복구 활동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 북구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북구는 최근 '괴물 폭우'로 인해 281세대 40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복구 작업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던 관내 곳곳이 보름여 만에 반복된 200㎜가량의 극한 호우로 또다시 흙탕물에 잠긴 아픔을 겪었다.

최병운 하나님의교회 목사는 "반복되는 재난으로 기후 트라우마를 겪는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구에 참여했다"며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조석호 광주시의원은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하나님의교회가 더욱 번영하기를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청소년지도위원協 '인성교육 특강'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최근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인성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부에서는 박대순 중앙경찰학교 경감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2부에서는 황혜성 NGO 교육학 박사가 '나도 할 수 있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1979년 발족 이후 46년간 불우 모범 청소년 발굴과 매년 20명 내외 무궁화장학생 선발·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고룡정보산업학교에 풋살장 골대 기증, 학교폭력 예방 법교육과 캠페인, 학교 밖 청소년 의복 지원 등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서생현 담양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다"며 "질풍노도 시기의 청소년을 위해 협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동강대 RISE사업단-세방전지 업무협약

동강대 RISE사업단은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세방전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이민숙(**사진 오른쪽**) 동강대 총장과 박원재 세방전지㈜ 공장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RISE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특히 동강대와 세방전지㈜는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산학 연계 모델을 탄탄히 구축해 지역산업을 이끌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원재 공장장은 "RISE 사업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 채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민숙 총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의 현장 역량을 높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학과 기업의 상생 산학협력 모델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광주예술중 미술과 '졸업전시회'

광주예술중학교가 오는 27일까지 교내 한빛갤러리에서 '2025학년도 제2회 미술과 졸업전시회'를 개최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작된 전시는 광주예술중 졸업 예정 학생 21명이 '스쳤고, 머물고, 닿을 거야'라는 주제로 지난 3년간의 성찰과 현재의 고민, 앞으로 마주할 미래에 대한 상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다.

/박선옥 기자

모집

▲광주매일신문 제1기 전남글로컬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정현택) 8월 모임=21일(목) 오후 6시30분 남악 시골집.

▲담양지역발전협의회 8월 정기 월례회의=19일(화) 오전 11시30분 담양공고 앞 원조제일숯불갈비. 담양군 담양읍 마두길 4. 061-381-1234, (사무국장 이달성 010-3638-3809).